

## 한국 신종교의 도교문화와 생명관 - 대순사상의 인간이해를 중심으로 -

윤 재 근  
대진대학교

---

### 〈요 약〉

---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생명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여 생명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이상의 실현이라 여겨왔던 문명이기의 발달이 도리어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야기된 전지구적(全地球的)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본질에 대한 해명은 하나의 통일된 정의로 도출되기는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생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 속에서 생명 존엄성에 대한 자각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대안까지도 도출할 수 있는 순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생명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한국 근대의 신종교에 주목하고자 한다.

수운(水雲, 崔濟愚; 1824-1864), 증산(甞山, 姜一淳; 1871-1909), 소태산(少太山, 朴重彬; 1891-1943) 등 한국 신종교의 개창자들은 시대현실을 직시하고 그 누구보다 고힐(苦海)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했던 역사적 대중교가들이었다. 그들은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민중 구제와 나아가 민중들이 갈망하는 풍요로운 이상사회의 건설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불선 삼교(三敎)의 정수를 융합하고 그들의 종교체험을 바탕으로 고래(古來)의 가치관을 재편성하는 공통된 성격을 띠게 된다. 또한 민중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기반으로 출발한 만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종래의 삼교에서 주장되는 생명관을 재해석하였다. 이것은 관점을 달리하면 한국 신종교사상의 공통의 문법인 개벽사상의 면모가 생명관념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과 개벽은 단지 조선 말에 국한된 과거의 유산이 아니며, 현실점에서 요구되는 난제의 하나인 생명윤리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생동하는 사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근대 신종교의 생명관은 바로 이러한 풍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현대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핵심 주제어: 신종교, 생명윤리, 도교, 신선, 수운, 증산, 소태산

## I. 논의의 초점

얼마 전 한 할머니의 인위적 연명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던 일이 있었다. 이른바 안락사의 문제인데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자연적 죽음에 대한 권리가 정면으로 대치되면서 의학적 법률적 문제로 비화되어 이론이 분분한 사건이었다. 결국 산소 호흡기를 제거하면 24시간 이내 자연사할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비롯기라도 하듯 그 할머니는 수개월 이상 자연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인간 생명에 대한 과학적 그리고 도구적 판단의 오류를 자연상태가 바로잡아 주는 것 같아 숙연한 느낌마저 든다. 한편 외국에서는 때 아닌 지진과 해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물론 그 수치조차도 통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연을 보호한다’는 인간들의 오만한 사고와 행위에 화가 난 자연의 준엄한 심판은 견잡을 수 없는 재해로 결과되는 것이다. 과연 인간이 자연을 보호해야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연이 인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인간과 외계사물에 대한 생명적 존재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문명의 발달은 인류의 역사를 진보시켰으며 편의를 제공하였고 이것이 이른바 인간이 꿈꿔왔던 이상의 실현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 낸 문명이기는 도리어 물질에 치우쳐서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였다. 인류는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끊임 없는 죄악을 저질렀고, 중국에는 인류의 생존 그 자체마저도 위협받게 되고 말았다. 이에 사회 도처에서는 생태적 생명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해결의 실마리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생명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증폭되고 있다.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생명공학과 그와 관련한 ‘생명윤리’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는 생명에 대한 본질적 물음임과 동시에 생명 경시의 심각성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생명에 대한 물음과 그 답변은 다양한 시도들에 비해 막상 명료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물론 종교, 철학, 문학, 생물학, 의학 등에서 생명에 대한 논의와 정의를 시도하며 각각의 존재방식에 대하여 내용과 형식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통일된 관점은 쉽게 도출되기 힘든 실정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명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각 분야별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단지 서로 만족할 수 없을 뿐이다. 물론 생명의 본질이 완전히 해명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생명 존엄성에

대한 자각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대안까지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명이라는 개념과 존재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특히 한국 근대에 형성된 신종교에 주목하고자 한다.

유불도 삼교가 전래된 이후의 한국 문화와 사상의 역사는 삼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삼교의 수용은 고유사상을 토대로 하여 서로 어우러져 한국인의 삶을 이끄는 전통문화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삼교가 추구하는 본연의 이상이 발현되기 보다는 외재적 현실로 인해 정치적 오도(誤導)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교가 한국인의 전통문화를 형성한 것은 하층민중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심중에 자리하여 그들의 상흔을 어루만져 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근대사회로 접어들며 이러한 하층민중의 인식처였던 삼교의 기능상실과 그 대안으로 한국 근대의 신종교가 대두된다. 19세기는 유교적 사회질서가 몰락해가고 외래의 사상과 외세의 정치적 통상적 문제가 밀려오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혼란의 시기였다. 이에 한국의 종교들은 구세제민을 주창하며 도탄에 허덕이는 민중을 진작(振作)시켜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제고(提高)하는 일선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했다. 하지만 종교적 생명력을 잃고 도태됨에 따라 종교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여 화석화되고 만다.

신종교의 개창자들은 시대현실을 직시하고 그 누구보다 고해(苦海)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했던 역사적 대종교가들이었다. 그들은 유교적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주장하고 특히 사회적 억압에 시달리고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민중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개창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교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민중들이 갈망하는 풍요로운 이상사회의 건설을 이룰 수 없다는데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삼교의 정수를 융합하고 나아가 그들의 종교체험을 바탕으로 고래(古來)의 가치관을 재편성하여 기성종교가 실현하지 못한 이상사회를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는 성격을 띠게 된다.

신종교의 사상체계가 민중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에 신종교는 당시의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현실적 생명 안위에 대한 보장 없이 시름하고 있는 민중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따라서 신종교의 생명윤리는 종래의 삼교에서 주장되는 생명윤리를 현대사회의 실정에 맞추어 재해석하게 된다. 그 당시 보여준 한국 신종교들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수용과 시대적 요구에 따른 변용의 지혜는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난제의 하나인 생명윤리에 방향성에 충분한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다양한 신종교 가운데 사회적 역사적 영향력의 측면을 고려하여 수운 최제우의 동학사상, 증산 강일순의 대순사상, 소태산 박종빈의 원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2009년 10월에 있었던 제 1차 선&도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 신종교와 도교문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을 한국종교교육학회지의 편집양식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내용을 첨삭한 것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 II. 한국 신종교와 도교문화

유·불·선 삼교는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역사적 교호작용을 통하여 서로의 경계를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공유성과, 한편으로는 개별 종교전통의 독자적인 성격으로 인해 각각의 교의(敎義)를 특징짓는 고유성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삼교의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각 종교전통의 본질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는 신종교에 있어 하나의 과제가 되었고, 개별 신종교 각 교단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신종교 각 교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교의 비중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자는 생명윤리에 있어서는 전통문화의 저변에 흐르고 있던 도교적 사유를 축으로 하여 삼교융합을 시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sup>1)</sup> 이는 도교의 다양한 문화현상 가운데 중심 테마인 신선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선사상은 무한한 생명에 대한 인간의 욕구에서 출발하여 죽음의 현실을 초극하고 영원한 도(道)와 하나 되는 천인합일의 경지를 추구한다.<sup>2)</sup> 한국 신종교 발생의 시대적 배경이 되었던 조선후기의 하층민 중들은 불로장생하고 조화력을 갖춘 신선이 되어 모든 차별과 원한이 해소된 평등한 세계에서 소요자재(逍遙自在)하는 것을 희구(希求)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의 안위조차 확신할 수 없었던 민중에게 도교적 생명윤리는 민중에 대한 보상 심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종교의 개창자들은 도교의 생명윤리를 최대한 추출하여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한국적 생명문화를 창출해 낸 것이다.<sup>3)</sup>

한국 신종교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동학의 창시자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1824-1864)는 자신의 신분적 한계로 인한 차별과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유학에 대한 회의를

- 1) 김홍철은 천도교는 유교적, 증산교는 선도적, 원불교는 불교에 주체를 두고 있다고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김홍철, 『한국신종교에 나타난 도교사상－증산교를 중심으로』, 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 『도교사상의 한국적 전개』(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312쪽) 신종교와 도교의 관계성에 관한 근대의 연구 성과는 유승종, 『신종교에 나타난 신선사상』, 『신종교연구』 제13집(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05). 김탁, 『증산교단사에 보이는 도교적 영향』, 한국도교문화학회 편, 『도교문화연구』 제24집(서울: 동과서, 2006). 양은용, 『한국도교의 흐름과 신종교』, 『한국종교』 제31집(전북익산: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7). 김용휘, 『한국선도의 전개와 신종교의 성립－왜 한국에선 도교 교단이 성립되지 않았는가』, 『동양철학연구』 제55집(서울: 동양철학연구회, 2008) 등이 있다.
- 2) 김태용, 『도교의 생명윤리』, 한국도교문화학회 편, 『도교문화연구』 제28집(서울: 동과서, 2008), 129-130쪽.
- 3) 이에 대한 논문은 김낙필, 『한국 근대종교의 삼교융합과 생명, 영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9집(전북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8). 김홍철, 『한국신종교 사상에 나타난 생명윤리의 흐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3집(전북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과 민형현, 『한국 '선'의 생명사상과 그 철학적 인간학－19c 민족종교사상의 인간이해를 중심으로』, 『대동철학』 제30집(부산: 대동철학회, 2005)을 참조할 것.

안고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배경은 오히려 수운의 학문이 성리학의 틀 안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운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수운은 그의 종교사상을 지향함에 있어 내용적으로는 유불도의 융합을 지향하였다.<sup>4)</sup>

수운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무병장수하는 이상세계를 지상에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에 그의 동학가사에서는 불사약, 지상신선(地上神仙), 선약 등의 표현을 흔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심신수련을 완성하고 선계에 승천하여 장생불사하고자 하는 전통적 개념의 신선과는 사뭇 차이를 보인다. 수운의 신선은 지상에서 바른 마음을 지녀 한울님과 하나가 되어 무병장수하는 데에 역점이 있으며, 그러므로 현세 초월적 신선사상을 현세 중심으로 전환시켜 해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5)</sup> 이러한 수운의 사상 전환은 절대적 존재라고 생각되었던 한울님이 사람의 몸에 모셔져 있다는 시천주(侍天主) 개념으로 정립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운은 한울님의 내면화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우주와 인간의 생명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sup>6)</sup>

신선을 이루기 위해 수운은 실천수행의 중요한 요체로 수심정기(修心正氣)를 제시한다. 그는 천인합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의예지라는 전통적인 유교의 도덕적 실천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어떤 종교적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 종교적 실천이란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과 같이 우주적 지기와 하나가 되는 기화(氣化)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전통적으로 유가에서는 인의(仁義)의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바른 기운, 즉 호연지기를 중시한 바 있다. 이는 인의의 실현을 통해 인격적 완성을 강조한 것인데 수운은 여기에 바른 기운의 측면을 첨가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강령체험과 같이 나와 우주적 원기가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sup>7)</sup>

이에 의거하면 바른 마음과 기운을 함양할 때 비로소 천인합일의 인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천지의 운행 자체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수운의 동학이념은 시천주(侍天主)의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천주와 인간의 상관관계, 즉 신과 인간, 개인과 세계, 하늘과 사람이라는 근본 고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학의 천인합일적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결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삼계를 두루 관통하여 활연대오(豁然大悟)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그 자체로 천지인 삼계를

4) “이 시대는 불법이나 유법이나 기타 모든 묵은 것으로는 도저히 새 인생을 거느려 나갈 수 없는 시대이지요. 다만 요할 것은 죽은 송장 속에서 새로 산 혼을 불러 일으킬만한 무극지운(無極之運)을 파지하고 신천신지신인(新天新地新人)을 개벽하여야 하지요.”(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제1편, (서울: 경인문화사, 1982), 34쪽)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5) 윤석산, 『동학에 나타난 도교적 요소』, 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 『도교사상의 한국적 전개』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343쪽.

6) 이정희, 『동학의 생명원리와 생명윤리』, 『동학학보』 제15집(서울: 동학학회, 2008), 162쪽.

7) 이성전, 『동학의 수심정기에 관한 일고찰』, 한국도교문화학회 편, 『도교문화연구』 제27집(서울: 동과서, 2007), 15쪽.

두루 구비한 존재이며, 현실의 삶에서 그 조화로움을 실현할 때, 인간은 스스로 천주와의 합일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다.<sup>8)</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수운은 도덕적 생명을 중시하고 도덕적 생명의 확산을 통해 이상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교적 입장에 만족하지 않고 도교적 관점을 적극 받아들인 것을 특징으로 찾아볼 수 있다. 빈곤과 질병이 없고 부당한 차별이 없는 이상사회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우주적 생명인 근원적 지기(至氣)와 하나가 될 것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즉, 동학은 생사를 넘어보고자 했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였던 것이다. 민중의 기대는 사실상 천지 대주위의 전면적인 개혁을 불러일으킬 만큼 강렬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같은 민중의 기대와 함께 한 동학의 생명윤리는 새로운 한국적 생명담론의 차원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킨 것이다.

원불교가 자수자각(自修自覺)한 소태산(少太山, 朴重彬; 1891-1943)에 의해서 천명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원불교의 교리 형성은 장구한 시간에 의해 형성되어 온 문화사상적 토양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소태산이 1916년 4월 28일 이른 새벽에 대각을 이루었고, 그로 인하여 원불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불교의 교리는 소태산의 대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소태산의 대각과 대각 직후의 교설을 통해 그의 도교적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구절은 소태산의 구도과정에서 있어서 도교사상과 맞닿는 사실을 기술한 부분이다.

11세 때 마을리 先山墓祭에 참례하셨다가, 산신을 먼저 제사하고 선조를 뒤에 제사함을 보시고 친족 중 한 사람에게 그 연유를 물어, 산신은 크게 신령하다 함을 들으시고는 나의 이 모든 의심을 산신에게 물으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어, 그 날부터 內心에 산신을 만나기로 작정하시었다. … 16세 되시던 정월, 환세 인사차로 처가에 가셨다가, 마침 마을 사람이 고대소설(朴太傳傳 趙雄傳 등) 읽는 것을 들으시는 중, 그 소설의 주인공들이 천신만고 끝에 道士를 만나 소원을 성취하는 지라, 대종사의 심중에 큰 변동이 생기게 되었다. … 그 후로는 길에 이상한 사람이나 걸인이 있어도 그가 혹 도사가 아닌가 하여 청하여 시험해 보시며, 또한 어디에 異人이나 隱士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찾아가 보시고, 혹은 청하여 같이 지내시며 시험해 보기도 하여, 그 후 6년간 도사를 찾아 일천 정성을 다 들이시었다.<sup>9)</sup>

위의 구절에서 소태산과 도교의 만남은 ‘산신’과 ‘도사’라는 민간신앙의 도교적 요소에서 비롯하였으니만큼 매우 소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산신과 도사를 만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정성이 10여 년간이나 지속되었다. 비록 이러한 과정에서 산신과 도사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건문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도교적인 지식을 몸에 익히게

8) 민영현, 『동학과 선(仙), 그 인간관과 생명사상에 관하여』, 『동학학보』 제9호(서울: 동학학회, 2005), 25-26쪽.

9) 『원불교교사』제1편 제2장 3. 대종사의 구도.

되었으리라고 짐작된다.<sup>10)</sup>

또한 소태산이 열람한 제종교의 주요 경전들 가운데 도교의 경전들이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소태산은 대각을 이룬 후 제종교의 주요 경전들을 열람하여 자신이 체험한 깨달음의 경지를 확인하였다.<sup>11)</sup> 원불교 교리의 도교사상 수용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태산이 도교사상을 수용한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태산이 열람한 제종교의 주요 경전들 가운데 도교의 경전들은 『옥추경(玉樞經)』, 『음부경(陰符經)』, 『정관경(定觀經)』, 『정정요론(定靜要論)』 등이 있다. 『옥추경』은 보화천존(普化天尊)의 서원에 따라 중생들의 고통과 재앙을 면해주는 위력을 지니는 경으로 민간 도교에서 보편적으로 신앙되었다. 그런데 이 옥추경이 교단 초기 기도의식에 활용된 예가 있다.<sup>12)</sup> 소태산은 1928년 4월 15일 이공주(李共珠)를 비롯한 여자제자 4·5명에게 초창기 9인선진의 법인기도를 계승한 기도를 드려보라고 권고하였다. 그 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보화천존’, ‘옥추대제(玉樞大帝)’ 등의 호칭이 나타나며 옥추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소태산 역시 옥추경을 신앙적 측면에서 수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음부경』은 조선조 내단학에서 중시된 경전이며 당시에 수련도교의 작법과 민중도교의 신앙을 연결하고 있어서 민간에 널리 유행하고 있었다. 소태산은 ‘恩生於害 害生於恩’,<sup>13)</sup> ‘陰陽相勝’<sup>14)</sup> 등의 표현을 비중 있게 인용하였으며, 『정관경』은 선인(仙人), 진인, 신인, 지인(至人) 등으로 득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정정요론』은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鼎山, 宋奎; 1900-1962)을 통해 증산 사후 그 문하에서 유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원명은 『정심요결(正心要訣)』이며 원래 한문본을 번역하여 『수양연구요론』에 편입한 이후 정산이 산정현토(刪定懸吐)·분장(分章) 및 첨삭가필(添削加筆)하여 『수심정경(修心正經)』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되었다.<sup>15)</sup> 『수심정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유불도의 사상을 포괄적으로 융합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분석해 보면 도교적 성격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불교 수행법 및 교리용어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소태산이 찬술한 문건 가운데 『감응편(感應篇)』이 포함되는 사실도 민중도교의 성전으로 평가되고 있는 『태상감응편』을 상기할 때

10) 안동준, 『소태산 일원상의 도교적 고찰』, 원불교 교화연구회 편, 『한국근대사에서 본 원불교』 (서울: 원화, 1990), 169쪽.

11) “대종사 또 생각하시되, 東洋道德으로는 儒教 佛教 道教 등이 있으나 지금까지 그 모든 教義를 자상히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내 이제 모든 교의의 강령을 참고하여 나의 얻은 바에 대조하여 보리라.” 송도성, 『대종사약전(大宗師略傳)』 『오도(悟道)』, 『원불교사상』 제10·11집, (전북익산: 원불교사상연구원, 1987), 618쪽.

12) 청하문집간행회 편, 『한마음 한길로』 (전북이리: 원불교출판사, 1984), 75-78쪽 참조.

13) 『대종경(大宗經)』, 『부촉품(附囑品)』 14장.

14) 이공전, 『대종경 선외록(選外錄)』 (전북이리: 원불교출판사, 1985) 73-74쪽.

15) 안동준, 『정정요론의 성립과정과 그 성격』, 『인류문명과 원불교사상』 (전북이리: 원불교출판사, 1991), 607-623쪽.

도교의 연관성을 간과할 수 없다.<sup>16)</sup>

이러한 맥과 같이하여 소태산은 “세상의 유정(有情) 무정(無情)이 다 생의 요소가 있으며, 하나도 아주 없어지는 것은 없고 다만 그 형상을 변해 갈 따름이니, 예를 들면 사람의 시체가 땅에서 썩은즉 그 땅이 비옥하여 그 근방의 풀이 무성하여질 것이요, 그 풀을 베어다가 거름을 한즉 곡식이 잘될 것이며, 그 곡식을 사람이 먹은즉 피도 되고 살도 되어 생명을 유지하며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본다면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영원히 죽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 지푸라기 하나까지도 백억 화신을 내어 갖은 조화와 능력을 발휘하나니라”<sup>17)</sup>고 하였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비결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생명이 오래 살고 싶거든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의 생명을 잘 보호해 줄 것이요”라 하고, “건강은 누워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낫고, 앉아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것이 낫고, 서 있는 것보다 돌아다니는 것이 낫고, 그저 돌아다니는 것보다 취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낫다”<sup>18)</sup>고 하였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 소태산은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 같고, 잠이 들었다 깨었다 하는 것과도 같다”<sup>19)</sup>고 하였다. 곧 우주가 끊임없이 성주괴공(成住壞空)으로 변화하고, 사시변천과 밤낮의 변화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듯 인간의 생로병사도 끝없이 돌고 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단지 삶에 대한 애착과 그릇된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다.<sup>20)</sup>

이러한 언급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태산의 생명윤리관에 있어 생명은 다른 것과의 연기법적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또한 인간의 생명이란 끝없는 순환의 고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의 찰나임을 말하고 있다. 즉 윤회와 전체, 생명의 연계 그리고 일호일흡(一呼一吸)이 다 생사라는 일련의 통합적 관념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sup>21)</sup>

### Ⅲ. 대순사상에 있어 인간과 생명의 문제

증산(甞山, 姜一淳; 1871-1909)은 민중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대변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손수 종교적 법리(法理)로써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을 짓고자 천지공

16) 고시용, 『원불교 교리형성과 도교사상』, 한국도교문화학회 편, 『도교문화연구』 제24집(서울: 동과서, 2006), 295-301쪽.

17) 『대종경』 「천도품(薦度品)」 7장.

18) 『법문집(法文集)』 「선외록(選外錄)」 11장.

19) 『대종경』 「천도품(薦度品)」 7장.

20) 원불교의 이러한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원불교 생명윤리에 대한 연구』(류성태, 『동양학연구』 제3집(전북익산: 원광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에서는 원불교 생명윤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21) 민영현, 『한국 근세민중종교사상에서의 생명 이해와 선(仙)』, 『한국정신과학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8호(서울: 한국정신과학학회, 2008), 77-78쪽.

사를 친행(親行)한 인물로 평가된다. 따라서 증산의 행록(行錄)은 민중에 대한 애심(愛心)과 민중의 입장이 심분 투영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민중에 대한 증산의 애정은 인신(人身)으로 강세하여 종교적 행적을 남기기 이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의 강세이전의 행보를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상제께서 九천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西洋)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三十년을 지내시면서 ...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도다.<sup>22)</sup>

위의 인용문에서 증산은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서 구천이라는 최고(最高)의 자리에 임하여 있다가 원시의 모든 신성 불 보살들의 하소연에 의해 대순(大巡)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광구천하를 위한 정황 안찰의 개시(開始)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대순의 동기가 “상제가 아니면 혼란한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sup>23)</sup>는 천지신명의 하소연에서 비롯된 것은 관점을 달리한다면 천지인 삼계(三界)가 우주운행을 담당하고 있던 천지신명의 능력만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아울러 천지신명이 의탁하고자 했던 증산은 바로 삼계를 광구할 수 있는 역량의 소유자이며 지대지성(至大至聖)한 삼계의 지존(至尊)임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증산은 스스로가 종교적 사명을 주관하는 주재자가 될 수 있다는 자기각성을 한 것이다. 증산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적 책무를 통해 진멸할 지경에 처하여 있던 천하 창생을 구하고자 하였다.

증산은『전경』에 의하면, 성품이 원만하고 관후하며 남달리 총명하여 못 사람들의 경대를 받은 것으로 전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나무심기를 즐기고 초목 하나 꺾지 않았으며 지극히 작은 곤충도 해치지 않을 만큼 호생의 덕이 두터웠다.<sup>24)</sup> 이러한 증산의 호생지덕은 대인(對人)에 머무르지 않고 대우주(對宇宙)의 차원에까지 발전하여 그의 종교적 행보를 일컫는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로 표출된다.

증산은 그의 사후 발견된 병세문(病世文)<sup>25)</sup>에서 세상의 윤리도덕이 무너졌다는 진단을 내리며, 그 원인을 상도(常道)의 상실로 지적하고 있다. 상도가 무너진 것은 상극의 지배

22) 『전경(典經)』 예시 1절.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서울: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 이하 『전경』의 인용은 ‘편·장·절’만을 간략히 표기한다. 예를 들면 ‘『전경』 교법 2장 7절’을 ‘교법 2-7’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23) 상제께서 어느날 종도들에게 『내가 이 공사를 맡고자 함이 아니니라. 천지신명이 모여 상제가 아니면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 하므로 괴롭기 한량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맡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셨도다. (공사 1-9)

24) 행록 1-11.

25) 행록 5-38.

원리와 그로 인해 양산된 원(冤)이 동인(動因)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처럼 그의 독특한 세계관에 기인하는 부정적 현실 세계의 원인을 증산은 단주에서 찾았으며,<sup>26)</sup> 단주의 원은 세대의 추이에 따라 확산되어 오다 서양 문명의 발달로 가속화 되었다고 이해하였다.

증산의 이와 같은 현실인식은 교화의 대상을 인간 본연(本然)에 초점을 둔 전통적 시각과는 다른 독창적 접근을 시도하게 하며, 인간적 차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근본원인을 궁구하여 인간과 외계사물을 모두 객체로 대상화 한 천지공사로 나타난다. 천지공사에 대해 대순사상에서는 이상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행위로 이해하는데, 증산은 천지공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처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하시고「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sup>27)</sup>

위의 인용에서 증산은 개벽의 필요성에 대해 낡은 집을 증축(增築)이 아닌 신축(新築)해야 함에 비유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낡은 집’에 ‘천지’를, 엮어질 염려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할 ‘집주인’에 ‘인간’을 서로 대비시켜 설명하였다. 또한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고 결심하여 진행한 천지공사는 도의 단절로 인한 무도(無道)를 유도(有道)로 전환시키는 대역사임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천지공사는 대인적(對人的) 차원의 모색이 아닌 인간과 외계사물을 포함한 대우주적 차원의 접근이라 하겠다.

증산의 천지공사는 창생구제의 순서를 구제의 직접적 대상인 창생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간접적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천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증산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으로 상극에 의해 인간의 원이 발생되며 이 원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파괴된 자연은 도리어 인간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게 된 것이다. 증산의 천지공사는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했을 때 반복 순환되는 폐단을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대역사라 할 수 있다.

26)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공사 3-4).

27) 공사 1-2.

증산의 사유범주가 전우주적 차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의 생명윤리 또한 천지인 삼계를 포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증산은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sup>28)</sup>고 하여 삼라만상에 신 또는 신명이 내재해 있어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생명체의 한 범주로 보고 있다.

대순사상에 있어서 인간은 천계(天界)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체이며 홀로 존재하는 단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sup>29)</sup> 신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에 대하여 증산은 인간 개체와 조상 선령신과의 긴밀한 관계를 “선령신을 섬길 줄 모르는 자는 살지 못하리이다”<sup>30)</sup>라고 역설하여 표현하고 있다. 양자의 유대관계는 자손이 조상의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통해 생(生)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자손의 수도(修道) 여하에 따라 후천에서 선령신의 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sup>31)</sup>

인간과 외계사물과의 유기적 관계는 혈연적 관계를 맺은 조상 선령신과의 관계에 국한되지만은 않는다. 증산은 인간을 외계사물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하늘의 관념을 천존(天尊)으로, 땅의 관념을 지존(地尊)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전체구조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 유기적 관계체라면 인간도 역시 인존(人尊)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sup>32)</sup> 그러므로 증산이 밝힌 인존사상은 우주질서의 새로운 전개와 함께 인간의 의식구조가 개혁되어야 함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구절에서 인간이 천존, 지존과 대별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존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다.<sup>33)</sup>

위의 인용에서 인간은 전체구조 속에서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존재가 곧 인간 존재와 직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인간은 신의 표상(表象)일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의 심령(心靈)은 신명들이 드나드는 출입문이고 길이며 인간존재의 중추가 된다. 전체의 한 부분에 불과했던 종래의 인간관을 탈피하고 인간이 전체의 중추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증산은 마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들고 있다.<sup>34)</sup> 마음의 무한한 작용에 관한

28) 교법 3-2.

29) 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종교교육학연구』 제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6), 113-116쪽.

30) 공사 3-9.

31)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 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드려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들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교법 2-36).

32)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교법 2-56).

33) 교법 3-35.

한 예로 ‘일심(一心)’을 볼 수 있다.

일심은 의뢰심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으로 증산은 탄알 밑에서 살아남는 것, 만리 밖의 군함을 한 손가락으로 튕겨 물리치는 일, 옷판에서 돈을 따는 일과 같은 신이(神異)한 경우를 예로 들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한 마음의 작용을 일심으로 보았다.<sup>35)</sup> 아울러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증산이 맡고 있는 복록을 지체 없이 베풀어주겠다는 확언을 하기도 한다.<sup>36)</sup>

마음의 작용이 외계사물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증산의 세계관은 단지 작용의 한 단면에 머무르지 않고 천지의 운행에까지도 전이된다고 보았다. 앞서 간략히 언급하였던 천지공사는 증산의 전 생애에 걸쳐 실행한 종교행위이며 그의 사상이 발현된 대순사상의 요체이다. 하지만 천지공사를 통한 정립(正立)의 한 대상인 인간이 오히려 천지공사의 흐름을 차단한다.

상제께서 기유(己酉)년에 들어서 매화(埋火)공사를 행하고 사십 구일간 동남풍을 불게 하실 때 사십 팔일 되는 날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애원하기에 상제께서 공사에 전념하시는 중임으로 응하지 아니 하였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서 원망하였도다. 이로부터 동남풍이 멈추므로 상제께서 깨닫고 곧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위안케하시니라. 이때 상제께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고 말씀하셨도다.<sup>37)</sup>

위의 구절은 한 사람이 품은 원한으로도 능히 천지의 기운이 막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단지 인간을 전체의 부분으로 보는 종래의 가치관에 대한 전환적 사고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각각의 개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생태공동체인 것이다. 그래서 개체주의적이라기보다는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구도에 생명윤리의 일면이 투영되어 있다. 천지만물은 자연계 안에서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를 넘어선 초자연적 세계와도 물샐틈없이

34)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 (행록 3-44).

35) 상제께서 최익현(崔益鉉)이 순창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라사대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알 밑에서 임 낙안(林樂安)은 죽고 최 면암(崔勉菴)은 살았느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일심을 가진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 하셨도다(교법 3-20); … 종도들이 상제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옷이 되는 법을 궁금히 여기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던지는 법을 일정하게 하면 그렇게 되나니 이것도 또한 일심이라」 하셨도다(권지1-18); … 상제께서 공우에게 우산을 받으라 하시니 공우는 상제께 받으시길 청하여 서로 사양하다가 함께 비를 맞아 옷이 흠뻑 젖으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뒤로는 우산을 들지 말라 의뢰심과 두 마음을 품으면 신명의 음호를 받지 못하니라」고 하셨도다(행록 4-40).

36)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없이 베풀어주리라(교법 2-4).

37) 공사 3-29.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증산이 견지한 생명윤리로 파악된다.<sup>38)</sup> 기계론적 세계관을 근간으로 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물질문명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함께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 자체로서의 자연이 가지는 성격은 변화를 가지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인간중심주의와 그로 인한 자연의 비인격화, 인간의 탈자연화, 그리고 물질만능에서 비롯된 인간상호간의 심각한 소외현상은 인간과 자연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소외 못지않게 물질적 풍요만큼이나 정신적 궁핍을 현대인에게 안겨주게 되었다.<sup>39)</sup>

증산의 천지공사는 이처럼 참혹하고 진멸지경에 이르렀다는 그의 현실인식에 바탕하는 것이며 인간과 자연의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한 생명 환원의 종교적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증산의 생명윤리가 투영된 천지공사에 나타난 변혁된 사유의 지향점은 후천선경의 건설이다.

#### IV. 맺음말

수운·증산·소태산이 제시한 생명존중 사상의 원리와 그 실천윤리의 제시는 과거 성자들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면서 당시의 역사적, 사상적 조류의 흐름 선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간절함이 스며있다. 따라서 조선후기라는 시대적 격동기를 당하여 슬한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특이한 한국적 성격과 현상, 즉 지배권력에서 밀려나 소외되고 있던 민중들과 함께 했던 사상적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또 이들이 당시 민중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의 종교적 행보를 본격화 한 과정으로 볼 때, 이들 한국 신종교 개창자들의 사유체계는 곧바로 한국 민중의 철학적 관념 내지 생명사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동기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이 지향했던 이상적 인간상은 현실적 고난과 한계로부터 자유로운 기지를 회구하는 인간상이다. 이를 신선 또는 인존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러한 인간사유의 배면에는 전통적으로 전래되었던 도교적 요소가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에서는 교단화되었던 도교적 실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민중들의 삶속에서 회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과 이상사회는 도교적 그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요소가 한국의 신종교에서 특히 잘 반영된 것은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19세기말의 혼란한 상황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개혁과 같은 종교적 모티브이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상적 인간상과 세계상은 도교적 그것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문명이기의 발달에 따른 생명 경시와 존엄성의 상실은 현대 인류의 난제이며, 이미 처

38) 윤재근, 「대순사상과 생태적 환경보존의 문제」, 『종교연구』 제23집(전북익산: 한국종교학회, 2001), 79쪽.

39) 박선영, 「21세기와 대순사상의 세계화 가능성」, 『대순사상논총』 제9집(경기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00), 595-599쪽.

해 있거나 다가올 우리의 미래이다. 한국 근대의 생명윤리는 바로 이러한 풍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근대의 신종교는 민중에 대한 개창자들의 이해와 사랑을 기반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시름하고 있는 민중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곧 시대적 요구에 맞게 종래의 삼교에서 주장되는 생명윤리를 재해석하게 된다. 이것은 관점을 달리하면 신종교 사상의 혁신적 개혁사상의 면모라고도 할 수 있다. 혁신과 개혁은 단지 조선 후기에 국한된 과거의 유산이 아니며,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난제의 하나인 생명윤리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생동하는 사상인 것이다.

## 참고문헌

- 『전경(典經)』.  
 『대종경(大宗經)』.  
 『법문집(法文集)』.  
 『원불교교사』.  
 고시용. 「원불교 교리형성과 도교사상」. 한국도교문화학회 편. 『도교문화연구』 제24집. 서울: 동과서. 2006.  
 김낙필. 「한국 근대종교의 삼교융합과 생명, 영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9집.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8.  
 김용휘. 「한국선도의 전개와 신종교의 성립—왜 한국에선 도교 교단이 성립되지 않았는가」. 『동양철학연구』 제55집. 서울: 동양철학연구회. 2008.  
 김 탁. 「중산교단사에 보이는 도교적 영향」. 한국도교문화학회 편. 『도교문화연구』 제24집. 서울: 동과서. 2006.  
 김태용. 「도교의 생명윤리」. 한국도교문화학회 편. 『도교문화연구』 제28집. 서울: 동과서. 2008.  
 김홍철. 「한국신종교에 나타난 도교사상—중산교를 중심으로」. 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 『도교사상의 한국적 전개』.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_\_\_\_\_. 「한국신종교 사상에 나타난 생명윤리의 흐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3집. 전북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류성태. 「원불교 생명윤리에 대한 연구」. 『동양학연구』 제3집. 전북익산: 원광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민영현. 「동학과 선(仙). 그 인간관과 생명사상에 관하여」. 『동학학보』 제9호. 서울: 동학학회. 2005.  
 \_\_\_\_\_. 「한국 '선'의 생명사상과 그 철학적 인간학—19c 민족종교사상의 인간이해를 중심으로」. 『대동철학』 제30집. 부산: 대동철학회. 2005.  
 \_\_\_\_\_. 「한국 근세민중종교사상에서의 생명 이해와 선(仙)」. 『한국정신과학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8호. 서울: 한국정신과학학회. 2008.  
 박선영. 「21세기와 대순사상의 세계화 가능성」. 『대순사상논총』 제9집. 경기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00.  
 송도성. 『대종사약전(大宗師略傳)』 「오도(悟道)」. 『원불교사상』 제10·11집. 전북익산: 원불교사상연구원. 1987.  
 안동준. 「소태산 일원상의 도교적 고찰」. 원불교 교화연구회 편. 『한국근대사에서 본 원불교』. 서울: 원화. 1990.  
 \_\_\_\_\_. 「정정요론의 성립과정과 그 성격」. 『인류문명과 원불교사상』. 전북이리: 원불교출판사. 1991.  
 양은용. 「한국도교의 흐름과 신종교」. 『한국종교』 제31집. 전북익산: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7.  
 유승중. 「신종교에 나타난 신선사상」. 『신종교연구』 제13집.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05.

- 윤석산. 「동학에 나타난 도교적 요소」. 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 『도교사상의 한국적 전개』.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 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종교교육학연구』 제2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6.
- \_\_\_\_\_. 「대순사상과 생태적 환경보존의 문제」. 『종교연구』 제23집. 전북익산: 한국종교학회. 2001.
- 이공전. 『대종경 선외록(選外錄)』. 전북이리: 원불교출판사. 1985.
-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제1편. 서울: 경인문화사. 1982.
- 이성전. 「동학의 수심정기에 관한 일고찰」. 한국도교문화학회 편. 『도교문화연구』 제27집. 서울: 동과서. 2007.
- 이정희. 「동학의 생명원리와 생명윤리」, 『동학학보』 제15집. 서울: 동학학회. 2008.
- 청하문집간행회 편. 『한마음 한길로』. 전북이리: 원불교출판사. 1984.

---

원고접수: 2010년 5월 20일 1차심사: 6월 3일 게재승인일: 6월 17일

연구자소개: 윤재근

- ① 전공: 종교교육, 한국신종교사상/소속: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부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한국종교, 한국신종교사상
  - ③ 주요논저: 종교와 인격교육,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대순사상과 생태적환경보존의 문제, 대순사상의 종교교육이론, 대순사상에 있어 인간의 욕망에 관한 해석
  - ④ E-mail: jkyoun@daejin.ac.kr
-

## Abstract

# **Taoistic Culture and Viewpoint of life in Korean New Religion: Centered on th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 in Daesoon Thoughts**

Youn, Jaekeun

Daejin University

As the time goes the importance of life rapidly increase in various fields of study. This could be seen as a way to overcome the serious problem caused by the rapid developing of civilization, which was believed as a way to materialize the world of utopia.

Despite these kind of needs, the essence of life is not easily defined with one clear statement. However during the process of trying to understand what life is, we could become more aware of the life, and also would be able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trend of taking life lightly.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ish to emphasize the need for redefining the meaning of 'Life' and also wish to focus of the New-found religion of Korea.

Soo-Woon, Jeung-San, and So-Tae-San, the Founders of the new-religion of Korea saw through the reality of our society, and all wanted to reform the pain filled reality of that time. Their goal was to aid the poor and the sick people, and to create an utopia which all the people dreamt of. To do this, they fused together the essence of Buddhism, Confucianism and Taoism. Then by using their own religious experiences, they all redefined the value of origin. Also, as they started off based with the love and understanding for the public, they reinterpreted the bio-ethics that were insisted by the Buddhism, Confucianism and Taoism.

This, if seen on the other point of view, tells that fact that the Gae-Beuk, which all Korean religion speaks of, is based on bio-ethics. Thus reformation and Gae-Beuk is not just a legacy limited in times of Chouson dynasty, but also a way that could help us

solve the problem of today's bio-ethics. So the bio-ethics of Korea's New-religion contains the significance which would give us answers to today's trends.

*Key words : New-religion, Bio-ethics, Taoism, Hermit, Soo-Woon, Jeung-San, So-Tae-San*